중앙신도회 70주년…‘조직 활성화 원년’ 선포

5월 12일, 신라호텔에서 기념식
진우 스님 등 700여 명 참석
‘국민 통합’ 퍼포먼스 · 비전도 제시
정원주 회장 “치유 · 평안 불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중앙신도회 발전에 헌신한 김의정, 이기흥 상임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은 공로패 수여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상을 높이며 신도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을 선언하고, 올바른 수행공동체로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회원7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기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롯해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형동 부회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전국신도회로 출범한 이후 불자 교육·포교·복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불교 대중화·사회화에 힘썼다. 2004년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를 통합하고 신도회관을 건립해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을 설립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선명상 대중화’ ‘청년불자 포교 활성화’ ‘남산 마애불 바로모시기’ 등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올해를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교구신도회 및 청년층 포교활성화에 매진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핵심가치를 대중에 알려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축제(9월20일, 광화문광장)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골프 대회(9월8일, 나주 중흥골드레이크) △제5회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9월20~21일, 전국 주요 사찰)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파크골프대회(9월27일, 구미 동락 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를 이끌며 종단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는 정원주 회장과 임원진들을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이제는 단순히 불교를 지켜내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의 본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가치를 사회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재가불자의 수행 실천이 종단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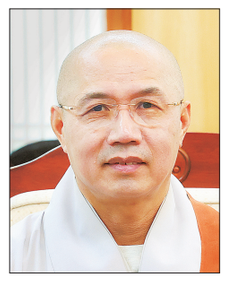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원만회향하는 중앙신도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신도회 발전에 헌신한 김의정, 이기흥 상임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의정 상임고문은 23·24대 중앙신도회장을 맡아 신도회관을 건립을 주도했다. 이기흥 상임고문은 25·26대 회장 재임 중 15개 상설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공헌 사업인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이끌었다.

행사는 ‘국민 통합,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탑등에 빛을 밝히며 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한국불교 100년 미래를 위한 중앙신도회 3대 핵심과제 비전 선포로 마무리됐다.

조계종 복지정책특보에 일운 스님

진우 스님, 5월 14일 위촉장



조계종 복지정책특별보좌관에 일운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일운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불교사회복지에 진심을 다해 일해왔기에 종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 특보에 임명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힘써온 경험을 살려 종단과 불교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복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대가 크다”면서 “더불어 승려복지 발전에도 역할해 달라”고 말했다.

일운 스님은 “복지정책 특보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불교계 복지관 수탁 등에도 신경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운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지장선원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국사 주지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 영면

5월 11일, 향년 97세



나눔의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사진〉가 5월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이옥선 할머니는 1927년 부산 중구 보수동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42년 7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위안소에서 1945년 8월 해방되기까지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할머니는 중국 길림성 팔도전 호조촌에 거주했으며 2000년 6월 나눔의집에 입소했다. 2001년 국적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회복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군 도검에 찔린 손발 흉터와 구타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도 인권 운동가로서 피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증언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을 방문해 ‘위안부’ 참상을 알리고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인권 대장정’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언론에 일본의 진정서 있는 반성을 요구해왔다.

이옥선 할머니는 2024년 1월부터 지속적인 신장투석과 치료를 위해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이 악화돼 동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5월 11일 오후 8시 5분 영면했다.

발인이 열린 5월 14일 나눔의집 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때묻은 역사 속으로 당신의 삶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부유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영 스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궈가겠다”면서 “한없이 포근하고 단아했던, 역사와 진실 앞에서 당당했던 용기 있는 여성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옥선 할머니의 유해는 5월 14일 인천 푸른바다장에 뿌려졌다.

이옥선 할머니가 떠나면서, 국내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이 됐다.

임은호 기자

아낌없이 주고 간 ‘인곡당 법장 대종사’ 기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대회

5월 23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서
법장 스님 삶, 보살행 등 조명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1941~2005·사진)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 보살행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법장 스님 열반 2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은 자신의 바랑에 중생의 고통을 모두 담고자 했다. 원력보살이었다. 법장 스님은 1994년 3월 생명공양실천회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으며,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듬해부터는 신장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골수기증 등을 이뤄내며 불교계에 ‘생명나눔운동’을 정착시켰다. 이후 평생을 생명운동에 매진했으며, 자신의 법구를 기증해 마지막까지 무소유와 베풂의 삶을 실천했다.

또한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중 비구니 문화부장을 발탁하는 등 비구니스님 위상 제고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스님은 이라크 전쟁 당시 조속한 전쟁 중단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쟁터인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불교문화유산의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일에도 참여했다.

‘아낌없이 주고 가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펼쳤던 스님의 다양한 실천·자비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출가와 수행’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법맥과 가풍’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사회활동’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종단활동’ 등이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사업회는 9월 11일 열린 20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행장집(가제)〉을 봉정한다.

신중일 기자

담 화 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팔공총림 해제는 수행과 전법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교구를 운영하라는 종단적 고심의 결과입니다. 안건 상정과 심의, 결의 역시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말사 주지스님들을 압박하며 신도들이 총림 지정 해제 반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종단 종헌과 종법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종도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훼불해종 행위입니다.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종헌 · 종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일입니다. 그 결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화사 소임자들은 종헌 · 종법을 위배하고, 종단의 기강을 어지럽히며 종도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종회는 불법(佛法)의 근본정신과 종헌종법에 따라 사부대중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는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 · 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종헌 · 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수행 중심의 청정한 교단을 구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불기2569(2025)년 5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책모임회장